

얼굴표정에 따른 3세와 5세 유아의 화자 정서조망

유 주 연¹⁾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어린이집

이 순 형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는 화자 정서조망에서 유아가 특정 단서를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는 목적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3세 유아 67명과 만5세 유아 75명을 대상으로 얼굴표정과 메시지가 상충되는 5개의 화자 정서조망 과제로 구성된 실험을 실시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에서 통계처리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는 화자 정서조망에 있어 발화내용 보다는 화자의 얼굴표정에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얼굴표정이 긍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보다 더 영향이 컸다. 특히 얼굴표정이 기쁨을 나타내는 경우에 화자 정서조망에 참조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만3세 유아는 특정 의사소통채널을 선호하지 않는 반면에, 만5세 유아는 특정 의사소통 채널에 대한 선호를 보여서 일관되게 한 가지 채널만 화자 정서조망의 단서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유아는 의사소통에서 발화 내용 외에도 비언어적 채널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함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의사소통, 얼굴표정, 발화내용, 정서조망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어린이집 교사(E-mail : apiggy98@snu.ac.kr)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I. 서론

인간은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의 의사를 분명히 이해하며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간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이상의 포괄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데(Hymes, 1974), 특히 정서 전달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표현의 통제가 가능한 언어보다 울음이나 미소와 같이 통제가 용이하지 못한 비언어적 표현 수단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Cacioppo, Martzke, Petty & Tassinari, 1988). 예를 들어, “정말 잘 된 일이야.”라는 말은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하지만, 화자가 이를 어떤 얼굴표정과 음성, 몸짓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 청자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화자의 진의를 여러 각도로 파악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 반응할 필요가 있다(Sperber, 1986).

표정이 전체 정보전달의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Mehrabian, 1972)가 뒷받침 해주듯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언어적 표현 수단 중 얼굴표정은 대인대면 상황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얼굴표정을 통해 타인의 정서상태를 인식하는 능력은 매우 일찍부터 갖추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출생 직후부터도 영아는 특정 얼굴표정이나 목소리에 뚜렷한 선호를 보이며 달리 반응할 수 있다. 생후 12개월 영아는 양육자가 짓는 표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낯선 사물에 접근할 때의 행동에 차이를 보이며(Score, Emode, Campos & Klinnert, 1985), 2-3세의 어린 유아들도 얼굴표정에서 기쁨, 슬픔을 판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Smiley & Huttenlocher, 1989).

상대방의 정서조망에 필수적인 얼굴표정 해독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은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기대되어지는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얼굴표정을 그림으로 제시하거나(Camras & Allison, 1985; Denham & Couchoud, 1990) 사진으로(Field & Walden, 1982) 혹은 직접 사람이 표정을 지어 제시하는 실험(Fellman, Barden, Carlson, Rosenberg & Masters, 1983) 모두에서 얼굴표정에 나타난 기본 정서를 판독하는 능력은 초등학교 이전에 완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표정을 통해 나타난 두려움이나 놀람 등의 복합 정서에 대한 구분은 연령에 따라 정확성에 큰 차이가 나타났지만(Simard & Jank, 1999), 기쁨, 슬픔, 화남의 세가지 기본 정서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을 때는 33개월에서 53개월 사이의 유아도 성인그룹과 동일하게 각각의 정서를 정확하게 구별하였다(Stifter & Fox, 1991).

일반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는 화자가 발화내용과 얼굴표정을 통해 동일한 정서를 표현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이 때, 얼굴표정은 발화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서를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며, 양자가 일치하는 정서를 나타낼 때는 3세 유아도 정확히 화자의 정서를 지각할 수 있다(Wigger & Van Lieshout, 1985). 하지만, 발화내용과 비언어적 표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반어적 의사소통 상황이라면, 화자의 정서를 조망하기 위해 특정 단서를 선택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 때, 성인은 얼굴표정을 비롯한 비언어적 표현을 발화내용에 우선한 판단의 단서로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비언어적 채널에 대한 본능적인 선호 일 뿐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통한 전략적 선호라 보고 있다(Burgon, 1985; Stiff, Hale, Garlick & Rogan, 1990). 즉, 비언어적 채널이 화자의 정서에 대해 말보다 많은 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지식을 얻게 되

고 이를 의사소통에서 활용한다는 것이다.

유아도 성인과 동일하게 언어보다 비언어적 표현에 더 관심을 쏟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은 얼굴표정이 아닌 음성을 통해 발화내용과 상충하는 정서를 제시하고 이 때 유아의 화자 정서조망을 살펴보았다. 비언어적 채널로 음성이 제시된 경우 학령 전기의 유아는 정서적 모순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음성보다 발화내용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Friend, Reilly & Muxkari, 1986), 4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발화내용과 음성이 표현하는 정서가 상반되는 문장을 들려주고 화자의 정서를 판단하는 과제에서 4세와 7세 아동은 언어적 단서에, 10세 아동은 성인과 동일하게 음성 단서에 더 무게를 두었다(Friend & Bryant, 2000).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특정 연령대의 아동이 의사소통에서 언어 편향성을 보인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실생활에서 유아가 음성 정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음성과 매우 상이한 정보 전달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시각정보(Depaulo & Rosenthal, 1979)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아는 생후 6주에서 30개월 사이에는 상황 맥락에 맞는 다양한 얼굴표정을 보이다가(Malatesta, Culver, Tesman & Shepard, 1989; Denham, Lehman, Moser & Reeves, 1995) 3세에 이르면 얼굴을 통한 감정 표현은 서서히 줄어들며 음성 표현은 증가하게 되는데(Denham, 1998), 이처럼 음성에 대한 이해와 표현은 얼굴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하며 이러한 유아의 얼굴표정과 음성 단서에 대한 해독능력의 발달상 차이가 화자 정서조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얼굴표정을 새로운 비

언어적 채널로 이용하여 얼굴표정과 발화내용이 상충하는 정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유아의 화자 정서조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채널에 따른 유아의 화자 정서조망을 살펴본 기존 연구는 4세 유아부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화자 정서조망에서 9세 아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Mottron & Trehub, 2001). 그러나 3세경에 이미 ‘기쁘다’, ‘슬프다’ 등의 기본 정서에 대한 단어 습득이 이루어져 얼굴표정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슬픔에 대한 명명이 가능하므로(Bretherton & Beechly, 1982; Dunn, Brown & Beardsall, 1991), 3세 유아의 화자 정서조망에 관한 과제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3세아는 영아에서 유아로의 전이기로 인지적 부담이 요구되는 발화내용 보다는 즉각적으로 해독되는 자극인 얼굴표정에 우선하여 화자 정서조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을 낮추어 언어 습득과 인지적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3세와 5세 유아가 화자 정서조망에서 얼굴표정의 참조 정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쁨, 슬픔, 놀람, 분노 등의 기본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 3세와 5세를 대상으로 한 정서 이해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정서인식에는 연령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에서는 연령 차이가 있다고 보고 되었는데, 3세 유아보다 5세 유아가 정서인식과 정서 표현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 Coulchoud, 1999). 이처럼 유아들이 긍정적인 정서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읽는 것을 어려워하며(Camras & Allison, 1985; Felleman et al, 1985), 다른 감정보다 기쁨을 더 잘 지각한다(Phillippot & Feldman, 1990)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각 의사소통 채널이 표현하고 있는 정서가 기쁨인지 슬픔인지에 따른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고문맥(high-contextual) 문화권에 속해 의사소통 상황에서 그 특성을 여실히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아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언어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얼굴표정 등의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감정과 진의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감정을 조망할 때, 유아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단서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아와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해되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얼굴표정과 발화내용이 상충되는 정서를 나타내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유아의 화자 정서조망은 어떠한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얼굴표정과 발화내용이 상충되는 정서를 나타내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얼굴표정과 발화내용이 표현하는 정서의 종류(기쁨, 슬픔)에 따라 화자 정서조망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얼굴표정과 발화내용이 상충되는 정서를 나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구성

연구대상		연령		계
		3세	5세	
성별	남아	33명	35명	68명
	여아	34명	40명	74명
전체		67명	75명	142명

타내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유아가 화자 정서조망을 위해 사용하는 단서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유아 67명과 만 5세 유아 7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전체 연구대상 142명 중, 남자는 68명, 여자는 74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연령을 3세와 5세로 선택한 이유는 얼굴표정과 발화내용이 나타내는 정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막 갖추게 된 3세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을 경험과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의 이행 단계에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5세간의 발달적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구도구

이 연구는 상충 정서를 나타내는 10개의 의사소통 상황을 Microsoft Power Point를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화 하여 제시하였다. Power Point의 슬라이드는 사진 파일과 소리 파일이 동시에 재생되는 삽입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화자의 얼굴표정과 발화를 실제 의사소통처럼 제시할 수 있었다. 10개의 의사소통 상황으로 이루어진 과제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과제의 구성

상황	얼굴표정	발화내용
1	기쁨	슬픔
2	슬픔	기쁨
3	기쁨	슬픔
4	슬픔	기쁨
5	슬픔	기쁨
6	기쁨	슬픔
7	기쁨	슬픔
8	슬픔	기쁨
9	기쁨	슬픔
10	슬픔	기쁨

얼굴표정

어른의 표정이 아닌 또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전형적이고 과장된 감정표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Boyatzis, Cahzan & Ting, 1993)에 따라, 5세 유아 20명(남아 10명, 여아 10명)을 대상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타내는 얼굴표정을 수집하였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유아의 표정을 얻기 위해, 짧은 일화를 들려주고 주인공의 심정을 표현하도록 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감정이 잘 드러나는 얼굴표정을 캡처 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사진을 표정 부호화 도구를 사용해 얼굴에 드러난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다. 얼굴표정 부호화 도구로 얼굴의 해부학적 근거에 의해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부호화하는 체계인 Ekman과 Friesen(1978)의 FACS(Facial Action Coding System)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감정을 표현하는 대근육을 중심으로 한 단위 분석만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선별된 표정 사진은 다시 10명의 성인이 표현하고 있는 정서에 100

% 동의한 것을 사용하였다.

발화내용

발화내용은 Denham(1996), Morton 등(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장을 참고하여, 대상 연령 유아가 즉각적으로 정서 상태를 유추할 수 있도록 유아가 또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만 3세 유아의 언어적 능력과 정서 판단 능력을 고려해 유아가 기본정서의 원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류표(Denham & Zoller, 1991)를 이용하여, 기쁨에는 즐거운 자극, 원하던 것을 갖는 사건을 담았고 슬픔에는 신체상 해가 되는 일, 관계 상실, 원하지 않던 사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쁨과 슬픔의 직접적인 원인을 담고 있는 문장을 각각 20개씩 만들어, 현장에서 3세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다섯 명에게 어휘, 문장 길이, 의미 명확성에 대한 평

표 3. 발화내용

기쁨
엄마가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했어요.
할머니는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슬픔
친구들이 나랑 함께 놀아주지 않아요.
좋아하는 그림책을 잃어 버렸어요.
뜨거운 물을 쏟아서 발을 데였어요.
엄마가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파요.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꼴찌를 했어요.

가를 거쳐 각각 10개의 문장을 선별하였다. 실험에서 최종적으로 사용된 문장은 표 3과 같다.

연구절차

이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 3곳과 유치원 1곳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유아는 독립된 공간에서 컴퓨터를 통해 제시되는 과제의 상황별 화자의 정서를 기쁘다 혹은 슬프다로 판단하였고, 연구자는 유아의 판단이 화자의 얼굴표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발화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결과표에 기록하였다.

자료의 분석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유아가 화자 정서조망에 선택하는 단서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증의 단일변수 적합도 검정을 살펴보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다중차원 검증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았다. 다음으로 정서의 종류(기쁨, 슬픔)에 따라 화자 정서조망을 위한 유아의 단서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 얼굴표정을 통한 화자 정서조망 적합도 검증

표현정서 (얼굴표정/발화내용)	얼굴표정을 통한 화자 정서조망 빈도 (%)							df	X ²
	0	1	2	3	4	5	전체		
기쁨/슬픔	17(12.0)	21(14.8)	24(16.9)	11(7.7)	23(16.2)	46(32.4)	142(100)	5	30.056***
슬픔/기쁨	33(23.2)	16(11.3)	14(9.9)	18(12.7)	14(9.9)	47(33.0)	142(100)	5	38.423***

***p<.001

III. 결과 및 해석

화자 정서조망의 전반적 경향

얼굴표정과 발화내용이 상충되는 정서를 나타내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유아가 화자 정서조망에 사용하는 단서 선택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적합도 검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적합도 검증은 열개의 상황으로 구성된 과제를 표현정서에 따라 다시 다섯 개씩 분류하여 유아의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조망 빈도를 보다 상세히 비교 하였다. 얼굴표정이 기쁨을 나타내고 발화내용이 슬픔을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다섯 번 모두 얼굴표정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조망한 유아가 가장 많았으며 (32.4%), 얼굴표정이 슬픔을 나타내고 발화내용이 기쁨을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다섯 번 모두 얼굴표정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조망한 유아가 가장 많았다(33.0%).

또한, 표 5에서와 같이 대응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가 화자의 정서조망에 얼굴표정

표 5. 화자 정서조망에 사용하는 단서비교

얼굴표정	발화내용	t
M(SD)	M(SD)	
4.27(3.55)	5.73(3.55)	2.434*

*p<.05

을 단서로 사용하는 정도가 발화내용을 사용하는 정도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화자 정서조망

화자 정서조망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얼굴표정이 표현하고 있는 정서에 따라 화자 정서조망을 하는 경우의 빈도수를 점수화한 표 6을 살펴보면, 5세 유아는 얼굴표정을 단서로 선택한 빈도가 0 또는 5의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3세 유아는 빈도가 0에서 5까지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3세 유아가 5세 유아에 비해 각 의사소통 채널이 상충되는 정서를 전달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가지 단서를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수행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Zelazo & Frye, 1998).

얼굴표정과 발화내용이 표현하고 있는 정서

에 따라 상황을 나누어 살펴보면, 얼굴표정이 슬픔을 발화내용이 기쁨을 나타내는 경우, 연령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X^2 = 22.693$, $df=5$, $p<.001$). 3세 유아는 다섯 번의 과제 상황에서 얼굴 표정에 따라 화자가 슬프다고 지각한 경우가 0회에서 5회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화자 정서조망에 사용하는 특정 단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세 유아는 일관된 단서를 사용한 경우가 얼굴표정(44%)과 발화내용(30.7%) 모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연령의 증가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된 전략을 사용하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Zelazo, Craik & Booth, 2003).

5세 유아의 경우에는 얼굴표정의 표현정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얼굴표정이 기쁨을 나타내는 상황에 비해 슬픔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발화내용을 화자 정서조망의 일관된 단서로 사용한 유아의 수는 두 배(30.7%)로 늘어나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표 6. 유아의 연령에 따른 화자 정서조망 X^2 검증

표현정서 (얼굴표정/ 발화내용)	연령	얼굴표정을 통한 화자 정서조망 빈도 (%)							df	X^2
		0	1	2	3	4	5	전체		
기쁨/슬픔	만3세	5 (7.5)	12 (17.9)	16 (23.9)	6 (9.0)	14 (20.9)	14 (20.9)	67 (100)	5	13.792*
	만5세	12 (16.0)	9 (12.0)	8 (10.7)	5 (6.7)	9 (12.0)	32 (42.7)	75 (100)		
슬픔/기쁨	만3세	10 (14.9)	10 (14.9)	11 (16.4)	13 (19.4)	9 (13.4)	14 (20.9)	67 (100)	5	22.693***
	만5세	23 (30.7)	6 (8.0)	3 (4.0)	5 (6.7)	5 (6.7)	33 (44.0)	75 (100)		

* $p<.05$ *** $p<.001$

표 7. 표현정서에 따른 화자 정서조망 비교

기쁨	슬픔	t
M(SD)	M(SD)	
2.99(1.82)	2.74(2.01)	2.04*

*p<.05

이는 다음에서 대응 t검증 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현정서에 따른 화자 정서조망

표 7에서와 같이 얼굴표정이 표현하는 정서가 기쁨일 때, 유아는 화자 정서조망의 단서로 발화내용에 비해 얼굴표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기쁨 얼굴표정이 슬픈 얼굴표정보다 유아에게 더 강하게 인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얼굴표정이 긍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 어린 연령의 유아도 더 쉽게 인지한다는 선행 연구(Camras & Allison, 1985)와 일치한다.

IV. 논의 및 결론

문화적인 특성상 반어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들 또한 부모나 교사로부터 말의 표면적인 뜻만을 따라서는 안 되는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된다. 성난 표정으로 “그렇게 계속 놀아라.”라고 말하는 엄마의 진의를 다섯 살 딸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는 양육자의 의사소통 방식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이처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반어적인 의사소통 상황(비꼼, 풍자)처럼 화자가 얼굴표정과 발화

내용을 통해 상충하는 정서를 나타내고 있을 때, 유아의 화자 정서조망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얼굴표정과 발화내용이 상충되는 정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얼굴표정이 화자의 정서를 조망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단서임을 보여준다. 이는 음성과 발화내용으로 실험하였을 때, 유아가 발화내용을 화자 정서조망의 단서로 사용한다는 선행연구(Friend & Bryant, 2000)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선행연구에서 특정 연령대의 유아가 의사소통 시 언어정보에 편향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이전의 결과에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얼굴표정은 보다 즉각적으로 인식되는 시각 자극이기 때문에 유아가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발화내용에 우선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아가 음성 정보에 민감하지 못하여 미성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청각적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과 같은 다른 감각 정보와 상황 맥락까지 함께 주어진 것을 감안할 때, 유아가 화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할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만3세 유아의 경우에는 화자의 정서조망을 위해 특정단서를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표정과 발화내용이 독립적으로 주어졌을 때는 각자가 표현하고 있는 정서를 쉽게 해독할 수 있지만, 두 채널이 상충하는 정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과제의 성격 상 3세의 인지 능력으로는 이해와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3세 유아의 이렇듯 일관되지 못한 단서 선택은 비록 5세 유아에 비해 문제 해결 능력이 성숙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일 수 있

나 이는 또한 3세 유아가 과제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상충하는 정보들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3세 유아도 손쉽게 해독되는 시각자극인 얼굴표정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표정과 발화내용을 통한 두 가지 정보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3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발화내용과 얼굴표정을 통해 상충하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화자를 컴퓨터를 통해 제시한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조망을 살펴보았다. 이때 주어진 발화내용이나 화자의 얼굴표정은 여러 번의 검정과 검증을 거쳐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주어지는 맥락 정보와 화자에 대한 기본 정보가 모두 배제되어 있으므로 실험상황에서 유아가 보인 화자의 정서조망 경향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얼굴표정 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몸짓 등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비언어적 채널에 대한 이해와 화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실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화자의 정서조망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에서 다른 유아들은 4.5세 이상이었던데 비해, 이 연구에서는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통해 3세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재고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3세 유아가 일관된 단서 선택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과제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한 연령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의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주어지는 여러 채널의 활용에 관한 발달적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타인의 기분과 의도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성인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채널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특정 시점에 완전히 성취되는 지식이 아닌 평생 동안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지혜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포함하여 개인간, 문화간의 여러 가지 차이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oyatzes, C. J., Chaza, E., & Ting, C. Z. (1993). Preschool children's decoding of facial emotio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2, 375-382.
- Bretherton, I., & Beeghly, M. (1982). Talking about internal states: The acquisition of an explicit theory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906-921.
- Cacioppo, J. T., Martzke, J. S., Petty, T. E., & Tassinari, L. G. (1988). Specific forms of facial EMG response index emotion during an interview: From Darwin to the continue flow hypothesis of affect-lade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92-571.
- Camras, L. A., & Allison, K. (1985).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and verbal label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9, 84-94.
- Denham, S. A. (1986). Social cognition, social

- behavior, and emotion in preschoolers: Contextual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7, 194-201.
- Denham, S. A. (1990). Young preschoolers, ability to identify emotions in equivocal situations. *Child Study Journal*, 20(3), 153-170.
- Denham, S. A., & Couchoud, E. A. (1990). Young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Child Study Journal*, 20, 171-192.
- Denham, S. A., & Zoller, D. (1991). When my hamster died, I cried: Preschoolers' attributions of the causes of emo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2, 371-377.
- Denham, S. A.,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enham, S. A., Lehman, E. B., Moser, M. H., & Reeves, S. (1995). Continuity and change in emotional components of temperament. *Child Study Journal*, 25, 289-304.
- Dunn, J., Brown, J. R., & Beardsall, K.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Felleman, E. S., Carlson, C. R., Barden, R. C., & Rosenberg, L. (1983). Children's and adults' recognition of spontaneous posed emotional expression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405-413.
- Field, T. M., & Walden, T. A. (1982). Production and discrimination of facial expressions by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1299-1311.
- Friend, M., & Bryant, B. J. (2000). A developmental lexical bia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repant message. *Merill-Palmer Quarterly*, 46(2), 342-369.
- Hymes, D. (1974). *Foundation in sociolinguistics*.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alatesta, C. Z., Culver, C., Tesman, J. R., & Shepard, B. (198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expression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life.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7, 239-269.
- Mehrabian, A., & Wiener, M. (1967). Decoding of inconsistent commun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109-114.
- Morton, J. B., & Trehub, S. E. (2001).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in speech. *Child Development*, 72, 834-843.
- Morton, J. B., & Trehub, S. E., & Zelazo, P. D. (2003). Sources of inflexibility in 6-year-olds' understanding of emotion in speech. *Child Development*, 74(6), 406-433.
- Philippot, P., & Feldman, R. S. (1990). Age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decoding of facial expres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43-54.
- Simard, P. G. (1999). Children's knowledge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s: Distinguishing fear and surprise.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0(2), 181-193.
- Sorce, J. F., Emde, R. N., Campos, J., & Klinnert, M. D. (1985). Maternal emotional signaling: Its' effects on the visual cliff behavior of 1-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95-200.

- Sperber, D., & Wilson, A.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ifter, C. A., & Fox, N. A. (1987). Preschool children's ability to identify and label emotio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0, 255-266.
- Wiggers, M., & Van Lieshout, C. F. (1985). Development of recognition of emotions: Children's reliance on situational and facial expressive cue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338-349.
- Zelazo, P. D., & Frye, D. (1997). Cognitive complexity and control: A theory of the development of deliberate reasoning and international action. In M. Stamenov (Ed.), *Language, structure, discourse, and the access to consciousness* (pp. 113-153). Amsterdam: John Benjamins.
- Zelazo, P. D., & Frye, D. (1998). Cognitive complexity and control: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Current Direction in Psychological Science*, 7, 121-126.

1 차원고접수 : 2006. 04. 01.

수정원고접수 : 2006. 05. 22.

최종게재결정 : 2006. 06. 05.

Children's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repant Messages from Facial and Verbal Cues

Jooyun Yoo

Soonhyung Yi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ildren's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of speake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repant messages from facial and verbal information depending on children's age and representing emotions. Subjects were sixty-seven 3-year-old children and seventy-five 5-year-old children recruited from four day-care center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task has ten circumstances of discrepant messages about speaker's emotion from facial expression and verbal content.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paired t-test, the goodness of fit, the multi-dimensional chi-squar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use of facial and verbal cues for speaker's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depending on children's age. 5-year-olds could use one specific communication channel consistently as a cue for speaker's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While 3-year-olds decided speaker's affective perspective without any rule using communication channels.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use of facial and verbal cues for speaker's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depending on channels' presenting emotion. It seemed easier for children to interpret the facial expression when it present positive emotion like happiness.

Key words : communication channel,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facial expression